

북한 시의 핵에 대한 사유와 형상화 이미지, 심리, 상상력을 중심으로

이지순*

이 글은 북한 시가 핵을 어떻게 사유하고 상상하는지 주목하고, 이미지, 심리, 상상력을 중심으로 핵의 표현 양상을 살폈다. 시 텍스트는 북한이 핵을 어떻게 감각하고 체험하는지 보여 준다. 핵은 전쟁과 평화라는 길항적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선과 악, 공포와 열망이라는 양가적 심리는 북한이 핵을 통해 자주적 국방력과 국력 모두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의 반영이었다. 생존에 대한 실존적 공포와 불안, 국력에 대한 열망, 세계와 동등한 관계로 부상하고자 하는 욕구는 핵무력 완성 과정에서 표출되었다. 국력은 위성이나 로켓의 우주적 시선과 상상력으로 감각화되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시선은 북한을 변방의 좁은 지역에서 벗어나게 하고 강대국을 지역적 영역성에 머물게 하면서, 동시에 세계와 북한을 동등한 관계로 표상하였다. 우주에 대한 공간의 확대는 핵무력 완성 과정에서 성취한 감각이었으며, 북한이 힘의 우열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 세계와 관계 맺기를 하려는 역설이었다.

주제어: 제7차 당 대회, 핵무력 완성, 실존적 불안, 정서의 구조, 공포, 욕망, 동형성, 국력, 영역성, 우주적 상상

*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1. 핵 담론의 기원과 사유의 결

북한에서 핵은 어떤 의미인가? 언제부터 핵을 욕망하게 되었을까? 북한 핵 담론과 핵전략에 대한 연구 성과는 매우 방대하게 축적되었다. 그렇다면 문학예술에서 핵은 어떻게 이야기되고 표현되어 왔을까? 예술적 상상과 정서적 태도에서 핵을 보유해야 할 마땅한 이유는 정치적·군사적 당위성과 일부는 겹칠 것이고 일부는 다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이 글이 핵에 대한 시적 표현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예술적 포즈와 문학적 언어로 포섭된 핵은 문화적 정서와 집단적 감정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표현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핵에 대한 시적 정서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핵이면서 북한 당국이 핵을 어떤 윤리적 위치에 놓는지 보여 준다.

2018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핵무력완성”을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의 보유라고 공언했다. 핵무력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염원이었던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는 최강의 국가방위력”이자 “전체 인민이 장구한 세월 허리띠를 조이며 바라던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으로 언술되었다.¹⁾ 이 언표는 김일성시대부터 핵을 열망해 왔으며, 핵보유국의 지위가 자주적인 방위국과 동일한 위상에 있음을 말해 준다.

핵무기의 파괴력을 목격하고, 핵무기의 실제 능력을 경험할 뻔했던 김일성에게 핵은 양면적이었다. 적대국의 핵은 국가 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지만, 그러한 핵을 보유하게 되면 국가 방위의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던 원폭은 제2차 세계대

1) 김정은, “신년사,” 『로동신문』, 2018년 1월 1일.

전의 막을 내리게 했지만 동시에 핵무기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보여주었다. 실전에 사용된 핵무기는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고, 수만 명을 희생시켰다. 거대한 섬광과 버섯구름은 ‘핵 홀로코스트’의 상징이었다. 인류사 최초로 전쟁에 사용된 핵무기는 공포와 트라우마를 안겨 주었지만, 핵의 무섭고도 놀라운 힘은 역설적으로 강대국의 증표가 되었다.

북한은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던 1946년의 ‘만국평화대회’와 1949년의 ‘평화옹호세계대회’에 적극 참여했다. 북한은 핵의 사용을 전범으로 간주하며 핵의 절대 금지를 선언한 1950년 3월의 ‘스톡홀름 호소문(Stockholm Appeal)’을 채택하여 반핵 서명운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반핵 반전 운동을 하던 북한은 1949년 8월 소련의 핵실험 성공이 미국의 핵 독점을 끝내자 핵을 긍정하는 태도로 바꾸었다. 미국은 한국전쟁에 중국이 참전하자 핵무기 사용을 적극 고려하기도 했다. 한반도에 만들어질 뻔했던 방사능 벨트에 대한 기억은 핵에 대한 공포가 실체화된 순간이었다. 종전 후 소련의 핵우산을 기대하던 북한은 핵개발을 방위력 강화로 보는 소련의 논리를 수용하며²⁾ 핵에 대한 공포를 열망으로 선회했다. 1956년 소련과의 원자력 협정 체결 이후 북한은 핵개발의 긴 도정에 올랐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핵 위협 담론이 북한 매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³⁾ 그러나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는 소련의 핵우산을 불신하도록 했으며, 북·소 관계를 악화시켰다.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핵공격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도록 했다. 북한은 취약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자주 국방을 표방할

2) 이중구, “북한 핵증강론의 담론적 기원과 당론화 과정,” 『국제정치논총』, 57권 1호(2017), 191쪽.

3) 구갑우, “북한 ‘핵 담론’의 원형과 마음체계, 1947~1964년,” 『현대북한연구』, 17권 1호(2014), 229쪽.

수밖에 없었다.⁴⁾ 1963년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자 또다시 중국의 핵우산에 기대를 걸면서도 자주 국방에 대한 북한의 갈증은 더욱 깊어졌을 것이다.

‘매력(attraction)’이자 ‘공포(revulsion)’라는 핵 심리의 이중성⁵⁾에 의하면, 적의 핵무기는 공포이지만 친구의 핵무기는 매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비핵 국가가 핵 국가와 적대관계일 때 핵 위협을 느낀다면, 반대로 우호관계일 때 핵 국가는 비핵 국가에게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⁶⁾ 2017년 11월의 핵무력 완성은 강대국에 의존했던 핵우산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2018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있는 핵강국”으로 북한을 호명했다. 약소국가의 핵능력은 생존을 담보하고, 국제사회에서 특별한 권위와 위상을 누릴 수단이 된다. 북한은 핵능력 강화를 통해 강성국가의 위상을 만든 것이다.⁷⁾

북한이 핵에 강박되었던 이유는 미 제국주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것인 동시에 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의 핵우산에 방위와 안보를 기대지 않는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3차 핵실험을 앞두고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과 평화적 환경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자주권은 생존권이고 자결권이고 발전권”이기 때문에 자주권 수호를 위해 ‘전면대결전’에 나서야 하며, “끝장을 볼 때까지 나가는 길밖에 다른 선택이란 없다”고 못 박았다.⁸⁾ 그리고 바로 2013년 2월 12일 3차

4) 정현숙, “북한 핵정책의 기원에 관한 연구: 핵 잠재력 확보전략을 중심으로”(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7~8쪽.

5) D. Barash and C. Weibel, *Peace and Conflict Studies*(London: Sage, 2002), p.140
재인용; 구갑우, “북한 ‘핵 담론’의 원형과 마음체계, 1947~1964년,” 200~201쪽.

6) 구갑우, 위의 글, 201~202쪽.

7) 홍우택·박창권, 『북한의 핵전략 분석』(서울: 통일연구원, 2018), 52쪽.

8) “우리의 선택은 적대세력의 상상 초월할것,”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5일.

핵실험을 하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을 공식 채택했다. 같은 해 3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병진로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로선”⁹⁾으로 주장되었다. 병진노선은 경제 건설에 주력하면서도 핵을 중심으로 하는 자주권을 고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1962년 12월 14일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병진노선’의 계승이라 할 수 있다. 2002년의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까지 아우르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병진노선은 오랜 전통을 지닌 전략인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담론은 국가 수립 초기에는 핵무기 금지가 주요 내용이었지만, 소련의 핵실험을 지지하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소련의 ‘좋은’ 핵무기와 미국의 ‘나쁜’ 핵무기라는 이분법”¹⁰⁾이 정착했다. 어떤 담론과 정책이든 선과 악의 이분법은 오늘날 핵에 대한 문화적 감정의 근간을 이루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이 평화 옹호와 전쟁 억지를 위한 선이고, 북한을 압박하는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 강대국의 핵은 전쟁을 부추기는 악이라는 논리를 계속 펼쳐 왔다. 이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이후 비핵화를 선언하는 정세에서도 배후를 이루었다.

그렇다면 핵은 어떻게 대중에게 이야기되는가? 핵에 대한 강박은 북한의 국제관계, 역사, 정치, 문화 등에 따라 결을 형성해 온 집단적 감정이다.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특정 시기의 사회적 경험이 용해된 것을 정서의 구조(structure of feeling)라고 정의하였다. 예술과 문학은

9) “조선로동당 중앙위 3월 전원회의 결론,”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2일.

10) 구갑우, “북한 ‘핵 담론’의 원형과 마음체계, 1947~1964년,” 243쪽.

현재적이고 정서적인 성질을 띠기 때문에 신념 체계나 제도로 환원될 수 없으나, 체험된 바는 정서 구조들의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다.¹¹⁾ 그렇기 때문에 핵, 미사일, 로켓이 등장한 시를 통해 북한이 어떻게 핵을 감각하고 체험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2017년 11월의 핵무력 완성 선언과 2018년의 비핵화 선언의 격차만 큼이나 북한을 둘러싼 정세는 급격히 변해 왔다. 2018년에는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었으며, 2019년 2월 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다. 기대와 달리 비핵화 경로는 순탄하지 않다. 2016년 핵보유를 선언했던 제7차 당 대회 시기부터 비핵화를 선언한 2018년을 전후한 시기의 시 텍스트는 유의미한 지점이 있다. 북한이 핵의 ‘보유-완성-포기’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욕망하고 어떤 미래를 계획하는지 짚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시적 행간에서 핵에 투사된 욕망과 미래 비전의 일부를 읽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핵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이 문학적 상상력으로 어떻게 작동하느냐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였던 북한의 핵실험이 시적으로 어떻게 형상되는지 당 대회의 문법과 대비함으로써 맥락적 긴장과 징후를 분석할 수 있다. 핵의 이중적 심리는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북한 시는 북한 사회의 문맥이 압축된 텍스트이며, 감정과 무의식이 용해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11) 레이몬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 『이념과 문학』, 이일환 옮김(서울: 문학과지성사, 1982), 165~169쪽.

2. 제7차 당 대회의 비전과 핵 토픽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말은 문학적 토픽의 씨앗이자 의식의 발아점이다. 언어로 개화하는 최고 지도자의 뜻은 북한 시의 주제와 표현의 근원을 이룬다. 그것은 단지 복사된 말에 머물지 않는다. 작가들이 반응하여 내면화하고, 문학적 형상을 입고 순환한다는 점에서 집단 의식 또는 집단적 감정의 맥아가 된다. 북한 시 텍스트는 현상에 감응하고 욕망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중요 참조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제7차 당 대회는 2016년 신년사에서 예고된 이후부터 문학의 주요 사건으로 취급되었기에 주제 면에서든 사회정치적 맥락에서든 분기점을 형성하고 있다.

김정은의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¹²⁾는 경제붕쇄와 제재로 고립된 섬에서 벗어나 세계와 경쟁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냈다. 당 대회에 종속된 담론들과 정책들, 만리마로 표상되는 대중동원은 이전 시대와 회고적으로 닮았으나 동시에 닮지 않았다. 천리마가 지상을 달리는 속도라면, 만리마는 대기를 뚫고 우주로 솟구치는 속도이기 때문이다. 사업총화보고의 행간에는 경제적 부흥과 기술의 진보, 환경에 대한 관심을 비롯해 미래 비전과 국가 발전 전략이 담겨 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요소들은 복잡한 소비자의 욕구를 전면에서 드러내지 않지만, 국가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 준다. 사업총화보고의 말들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발전을 지향하는 국가적 목표와 변방에서 벗어나 세계에 동참하려는 개방 욕구와 접변을 이루고 있다.

5개의 장으로 구성된 사업총화보고의 말들은 재생산을 위한 저장고

12)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년 5월 8일. 이하 ‘사업총화보고’로 약칭하며 각주 생략함.

이다. 1장 ‘주체사상, 선군정치 위대한 승리’는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성과를 총평하고 있으며, 2장 ‘사회주의위업완성을 위하여’에는 미래 비전과 전략이 집중되어 있다. 3장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가 통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이라면, 4장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는 북한의 대외정책으로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병진노선을 관철하겠다고 천명하는 장이었다. 5장 ‘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유일영도체계의 강조라 할 수 있다. 2장이 당의 최고 강령으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내놓으며 과학기술강국, 정치군사강국, 경제강국, 문명강국 등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담고 있고 있다면, 4장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강조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모순적 의지를 보여 준다. 핵무력 완성 후의 행보가 이미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제7차 당 대회나 핵 담론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지만, 문화 예술 분야의 연구는 많지 않다. 이전의 당 대회와 통시적으로 비교하며 비판적으로 조명한 김성수,¹³⁾ 당 대회를 토픽의 저장소로 보고 만리마키워드의 형상을 살펴본 이지순¹⁴⁾ 등이 있지만 핵 담론을 집중적으로 살핀 경우는 아니다. 한반도와 세계정세에 큰 변수로 작동하는 ‘핵’이 북한 문학예술의 중요 소재이자 주제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핵에 대한 정서적 태도와 예술적 형상을 짚어볼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이때 중요 참조점이 사업총화보고이다. 당 대회에 언명된 핵보유 선언은 북한에서 핵이 가지는 보편적 가치와 의미의 지속성을 수렴하고 있다. 핵과 관련된 북한의 의식과 무의식의 일부를 이해하는

13) 김성수, “당(黨)문학의 전통과 7차 당 대회 전후의 북한문학 비판,” 『상허학보』, 49집(2017).

14) 이지순, “7차 당 대회 이후 ‘만리마’의 표상 체계,” 『한국언어문화』, 67집(2018).

코드로서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총화보고의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사업총화보고에서 핵과 관련된 언급이 처음 나오는 부분은 1장의 첫 대목 ‘1)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투쟁’이다.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에 따라 적극 투쟁하였음을 천명하면서, 이 병진노선이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혁명의 최고이익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핵무력은 국가의 방위력과 경제건설 모두에 중요한 가치가 있으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혁명적인 로선”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1장의 두 번째 대목인 ‘2) 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 부분에서는 세 차례의 지하 핵 시험과 첫 수소탄 시험의 성공이 북한을 “세계적인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려세우고 미제의 피비린내나는 침략과 핵위협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게 한 자랑찬 승리”로 이끌었다고 내세웠다. ‘획기적’이면서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적인 성과’로 일컬어지는 핵 또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집단의 단결을 공고히 하려는 수사적 차원만은 아니다. 제재와 봉쇄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고, 북한은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획기적’인 ‘기적’으로 그 힘과 대결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에서 핵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에 대응하는 반작용이자 장력이었다.

사업총화보고의 3장에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적발 숙청해야 하는 적들은 “현대판종파분자들”과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로 꼽혔다.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는 ‘반당’, ‘주적’으로까지 언급되었다. 그러나 시 형상에서의 ‘적’은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와 봉쇄”로 일관되게 나타나 있다. 관료주의나 부정부패가 내부의 적이라면, 제재와 봉쇄는 외부의 적이다. 공동체의 존속을 위

협하는 외부의 적은 오히려 공동체의 단결을 공고히 하는 시멘트 역할을 한다. 내부의 균열을 봉합하고 집단의 단결을 위해 더욱 강력하게 언급되는 것은 외부의 적이다. 외부의 적과 맞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핵으로 상징되는 힘인 것이다.

2016년 1월의 수소탄 시험의 성공과 2월의 ‘광명성 4호’ 발사 성공은 “국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고” “전체 조선인민에게 최후승리에 대한 무한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 주는 “민족사적대경사”로 규정된 바 있다.¹⁵⁾ 이 글이 주목하는 부분도 사업총화보고 4장의 ‘세계의 자주화’ 부분이다. 핵에 대한 북한의 당시 입장과 향후 뺏아 나갈 행보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4장에 의하면 수소탄을 보유한 ‘국력’과 ‘핵강국’의 지위는 대외활동의 기준점이다. 핵은 국가의 방위력을 공고히 다지는 무기와 ‘대외관계발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갈 열쇠의 역할을 한다. ‘책임 있는 핵보유국’의 위상은 제재와 봉쇄의 주요 세력인 미국과 맞설 힘의 획득을 의미한다.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을 대외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삼고 ‘핵전파방지’를 성실히 이행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한다는 논리는 핵보유와 핵무력 완성을 위한 중요 토대이다. 핵을 둘러싼 북한 내부와 외부의 시선의 차이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식으로 평화와 전쟁에 대한 개념 사용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여기에는 단순히 핵에 대한 강력한 의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핵실험들은 직설적인 언어와 문학적 상상력을 덧입고 북한 시에 반영되었다. 평화를 위

15) “《광명성-4》호 발사성공 평양시군민경축대회,” 『로동신문』, 2016년 2월 8일.

협하고 전쟁을 도발하는 북한의 핵실험이 북한 내부에서는 평화를 수호하고 전쟁을 억제하는 기제였다. 북한의 내부와 외부의 관점 차이는 문학 언어에서도 분명히 포착되었다. 문학의 언어들은 북한이 공유한 집단적 감정과 의식이 작동하는 미디어였다.

토픽의 공유는 북한 문학의 중요 특징 중 하나이다. 최고 지도자의 말과 국가 담론은 논리적 입증 없이도 진리로 받아들이는 주제의 저장소로 작동하며, 당 대회 이후에는 사업총화보고가 그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즉 사업총화보고의 말들은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반복하여 다룰 수 있는 권위를 갖춘 주제들의 목록’¹⁶⁾으로 참조체계이자 표상체계이다. 사업총화보고는 소재와 주제의 재생산을 견인하고, 설득을 위한 논리와 거시적인 목표의식의 동형성(isomorphism)을 형성한다. 상호텍스트성은 형상의 층위뿐만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을 포괄하고 있다. 국가 담론과 감정 언어의 동형성은 당 정책의 나팔수인 북한 문학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만 보기 어렵다. 국가 담론을 내면화한 시인의 어조(tone)는 국가의 목표의식과 개인의 욕망을 동시에 표출한다. 국가의 목표의식과 개인의 감정이 상호작용 하면서, 집단의 의식과 감정이 핵을 통해 동형성의 궤도를 그리는 것이다.

3. 전쟁과 평화의 길항 이미지

북한 시는 핵실험과 로켓 시험발사와 동시성을 지니고 창작, 발표되었다. 이때의 시 창작은 ‘사건’에 대한 선언적인 의의 천명에 가까웠

16) 이지순, “7차 당 대회 이후 ‘만리마’의 표상 체계,” 50쪽.

다. 강한 선전 언어는 ‘확성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 국가와 당을 대신해 시인이 ‘뜨겁게 노래’하는 시들은 가족상사성(family resemblance)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이 닭은꼴의 목소리들은 어떻게 핵을 노래하는가?

당 대회 이후부터 핵무력 완성 선언에 이르는 도정은 그야말로 가팔랐다.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으며, 조선중앙TV는 이를 최초의 수소탄 시험으로 공표했다. 당 대회를 앞두고 ‘선(先)핵무력 완성, 후(後)경제강국 건설’이라는 김정은의 혁명업적을 극대화기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¹⁷⁾

칼을 물고 막아서는 날강도의 머리에/백두산대국은 터쳤다/무서운
징벌의 핵우뢰를/(...중략...)/온 행성우에 메아리쳐올린/조선의 핵우뢰//지
켜주리라 이 핵우뢰는/눈부신 궁전과 야영소들에서 울리는/우리 아이들의
구김살없는 고운 노래소리를/더 좋은 래일을 꿈꾸며/행복의 잠자리에 든/
인민의 깊은 단잠을//억척같이 지켜주리라 이 핵우뢰는

전승일, 「영원히 푸르리라 우리의 하늘은」 부분
(『조선문학』, 2016년 2호)

시에서 핵실험은 지상의 존재들, 특히 아이들의 노래와 인민의 단잠을 지켜주는 보호막으로 형상되었다. 수소탄/핵실험은 침략의 핵폭음을 정의의 불우뢰로 맞서며,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을 저지하고 자국의 평화를 수호하는 강력한 방패의 의미를 지닌다.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구름’에 맞선 ‘징벌의 핵우뢰’로 북한의 핵실험을 형상하는 것은 문학적 관습이었다.

17) 이승열·이승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016년 남북관계 전망,” 『이슈와 논점』, 1119호(2016).

북한의 핵은 ‘우뢰’로, 적들의 핵은 ‘구름’으로 형상된다. ‘우뢰’는 천둥번개로서 하늘의 계시, 징벌, 신의 외침 등의 원형이미지(archetype)가 있다. 하늘을 가르는 번개와 지상을 쪼개는 벼락은 적들을 징벌하고 섬멸하는 힘의 상징이다. 이러한 상징적 이미지는 윤리적으로 핵실험의 정당성을 설파한다. 북한의 핵은 적과 맞서는 무기의 의미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 민족을 수호하고, 질서와 법칙을 유지하며, 법과 도덕을 지배하는 정의의 힘으로 표상된다.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것은 외부에서 몰려오는 ‘핵구름’이다. ‘원썩’의 핵은 생명을 멸하고 세계를 종말에 이르게 하는 핵구름이다. 구름은 시련과 고통을 상징하고, 하늘과 태양을 볼 수 없게 하는 고난이다. 핵폭발의 ‘버섯구름’인 핵구름은 핵 홀로코스트를 불러오는 재앙과 공포이다. 그 재앙과 공포를 흠뜨리고 물리치는 것이 ‘우뢰’인 것이다. 핵은 결핍일 때는 재앙이지만, 충족일 때는 축복이 된다. 전쟁의 기운을 몰아오는 구름을 ‘핵우뢰’로 물리치고, ‘불우뢰’로 태우고서야 하늘이 나타난다. 하늘은 절대적 실재이자 영원성의 상징이며, 높고 광대한 신의 영역이자 신성의 공간이다. 이 신성한 공간의 탈환은 핵우뢰로 핵구름을 물리쳤을 때 가능해진다.

궁지로위라 신심높아라/목숨과도 같은 나라의 자주권과/민족의 존엄을 지켜주고/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한/무진막강한 조선의 힘/우리 원수님 안겨주신 힘이여//원수들이 핵몽둥이를 들고/미친듯이 달려들어도/이 땅에선/창조의 기념비들 더 높이 솟아나고/인민의 웃음소리 더 높아지나니//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이여/너의 무게는 정녕/원수들의 총구가 마주보이는/최전연의 험한 길도 주저없이 걸으시는/우리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무게

조석영, 「우리의 수소탄」 부분(『조선문학』, 2016년 3호)

북한의 핵실험이 외부에서는 충격과 위협이라면, 내부에서는 행복과 기쁨과 희망이다. 인용된 시에서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내고 맞이한 눈부신 ‘해빛’과 ‘푸른 하늘’은 김정은이 지닌 영도력의 환유로서 강성번영과 미래를 보증한다. 대외적으로 전쟁 위기가 높아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핵으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한다는 의미화는 더 커졌다. 소련의 핵우산 아래 원형질로 형성되었던 ‘좋은’ 핵과 ‘나쁜’ 핵의 이분법은 좀 더 정교해졌다.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적들의 ‘핵몽둥이’에 맞서는 수소탄은 자주권, 민족의 존엄, 전쟁이 없는 세계, 인류의 이상, 세계 평화와 안전 수호의 대의로 확장되었다. ‘원수들’의 총구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기념비는 더 높이 솟아나고 웃음소리가 더 높아지는 이유는 김정은의 애국헌신과 애국애민 덕분이다. 안보와 인민생활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핵무력·경제 병진노선의 축약이라 할 수 있다.

4편으로 구성된 리영민의 시초 「전쟁에 대한 생각」(『조선문학』, 2016.3) 중 한 편인 「누가 전쟁을 원하는가」는 4차 핵실험이 갖는 의미, 전쟁과 평화에 대한 시적 인식을 보여 준다. 시의 전반부는 사회주의 명절이자 국제기념일인 3.8국제부녀절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부녀절에 여성에게 꽃을 선물하는 풍습에 따라 아내에게 줄 꽃을 고르며 매대 앞을 서성이는 중년 남성, 대동강가에서 데이트하는 청춘남녀, 꽃다발을 든 노인의 웃음 띠는 얼굴은 일상의 평화와 안온함을 담고 있다. 시의 전반부가 명절을 맞은 사람들의 들떠 있고 흥성이는 분위기라면, 이와 대조되는 후반부는 위협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땅의 남자들이 꽃을 고를 때/이 땅의 녀성들이 꽃을 기다릴 때/멀지 않은 저 남쪽바다가 대형함선우엔/침략자의 목구멍인양/아가리를 벌린 대

구경포신들/핵탄을 만재하고/활주로를 차고 날아오르는/핵폭격기들//갓
 움튼 봄의 햇썩을 짓밟고선/얼룩덜룩한 철갑모들/전방을 노려보는 살기편
 눈길에/봄의 따스한 훈향조차도 얼어붙는듯/은 세상이 축하의 꽃다발을
 고를 때/이 땅엔 침략의 검은구름이/아름다운 꽃잎들에 그늘을 던지거나/
 증오와 분노로 떨리는 주먹/그 주먹에 쥐어진 꽃다발들이여//오, 누가 전
 쟁을 원하는가/누가 평화를 원하는가

리영민, 「누가 전쟁을 원하는가」 부분, (시초)「전쟁에 대한 생각」
 (『조선문학』, 2016년 3호)

명절을 맞은 북한이 조용하고 평화롭게 일상을 보낸다면, 북한의
 밖은 격렬하고 폭력적이다. 평화롭고 활기에 찬 풍경은 대형 함선, 아
 가리를 벌린 대구경 포신들, 핵탄을 만재한 핵 폭격기들에게 위협받고
 있다. 평양이 봄의 햇살과 함께 하는 평화의 공간이라면, 남쪽 바다는
 전쟁의 불온한 공간이다. 북한과 적들은 내부/외부, 평화/전쟁, 꽃/검은
 구름, 선/악으로 선명하게 대조되어 있다. 전쟁의 긴장도를 높이는 것
 은 북한을 위협하는 외부의 적들이다.

앞에서 인용된 시들은 모두 2016년 1월 6일 ‘첫 수소탄 시험’인 4차
 핵실험과 2월 7일의 광명성 발사를 문맥화하고 있다. 기습적으로 이루어
 어진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가 2270호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견인
 했다. 강도 높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를 강행한 명분은 ‘평화’ 수호였다.¹⁸⁾ 김정은 정권 초기의 민생담론에
 서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던 것은 ‘사탕 한 알과 총알 하나’의 극적 대비
 였다.¹⁹⁾ 그러나 2013년 핵무력·경제 병진노선은 생존과 안전보장, 그

18) 이지순, “타자의 문화정치학으로 북한 시 읽기,” 『계간 작가들』, 67호(2018),
 142쪽.

19) 김성수, “선군(先軍)과 ‘민생’ 사이: 김정은 시대 초(2012~2013) 북한의 ‘사회주의
 현실’ 문학 비판,” 『민족문학사연구』, 53집(2013), 422~429쪽.

리고 경제적 번영을 국가 목표로 했다.²⁰⁾ 총알보다 사탕을 중요시하며 균열되었던 선군은 7차 당 대회 이후 선택(先核)으로 전환하면서 “사탕 한알보다 총탄 한알이” “그토록 귀중”하게 되었다. “불밝은 락원의 창가 /우리의 피와 땀으로 일떠세운/이 땅의 모든것을 위해” 핵을 가지게 되었으며, “위대한 사랑의 힘”은 “조선의 핵”이 되었다.²¹⁾ “사탕알 없인 살아도/총알없인 못산다는 그 배짱으로/자력자강의 위대한 기치높이/백두밀립의 연길폭탄정신 안고/최후승리를 향하여”²²⁾ 좌표를 되돌렸다.

사업총화보고 4장 ‘세계의 자주화’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강조하며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세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5차·6차 핵실험에 이어 2017년 11월 29일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²³⁾ 성공으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까지 ‘로케트마라손’을 달려온 ‘로케트사변의 해’²⁴⁾가 점철되었다.²⁵⁾ ‘로케트마라손’ 코스를 지날수록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는 높아졌다.²⁶⁾ 제재결의안이 발표되고 6차 핵실험(2017.9.3.) 직전에 발간된 『조선문학』 2017년 9호

20) 홍우택·박창권, 『북한의 핵전략 분석』, 89쪽.

21) 원영옥, 「묵숨같은 사랑을 위해!」, 『조선문학』, 2016년 11호.

22) 리일섭, 「선택」, 『조선문학』, 2017년 4호.

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 성공,” 『로동신문』, 2017년 11월 29일.

24) “만세 만세 만만세!” 『로동신문』, 2017년 11월 30일.

25)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2017년 11월 29일의 『로동신문』 기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의 ‘로케트마라손’은 ‘3.18 혁명’(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 분출시험), ‘7.4 혁명’(화성-14형 1차 시험발사), ‘7.28의 기적적 승리’(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9월 3일의 6차 핵실험(대륙간탄도로케트 장착용 수소탄 시험 성공), 11월 29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 발사 성공으로 이어졌다.

26)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71호 만장일치 채택,” 『중앙일보』, 2017년 8월 6일.

에는 ‘화성-12’, ‘화성-14’ 등에 대한 시들이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핵 실험과 로켓 발사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위해/후손만대의 안녕과 번영/행성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²⁷⁾ 정당화되었다. 위성이 쏘아졌던 “저 하늘 비좁게 새형의 로케트 날아오르”고 “새형의 주체탄들이/내 조국의 푸른 하늘로 날아”오른 것은 “자주의 탄, 정의의 탄, 평화의 탄”으로 “핵강국 로케트맹주국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것이었다.²⁸⁾

너는 맑고푸른 하늘아래/키높이 솟구치는 문명의 새 거리들/학교로 가는 아이들의 노래소리/신심과 희망에 넘쳐/미래로 가는 우리의 힘찬 발걸음//너는/이 땅에 때없이 검은구름 몰아오는/미제의 정수리를 내리칠 벼락/미본토전역을 재더미로/백악관을 무덤으로 만들어버릴/백두산강군의 무진막강한 힘/통일의 광장에 터쳐올릴 장엄한 축포의 불보라//어찌 이 땅의 안전과 평화만을 생각하였으랴/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에 시달리는/약소한 나라들/전쟁의 재난과 불길속에 피흘리는/세계의 인민들을 구원하시려/그이는 핵과 로케트를/정의의 보검으로 높이 드셨나니//환희롭다/우리의 《화성》이 새겨가는 하얀 비행운에서/사람들은 본다/무궁토록 이고 살 꽃구름 핀 봄하늘을/자주와 진보/친선과 협조의 무지개다리를//아름답다/우리의 《화성》이 날으는 저 하늘아래서/지구는/인류의 리상과 념원이 꽃피는/자유와 행복의 동산으로/제모습을 찾는다

리영철, 「평화의 보검」부분(『조선문학』, 2017년 11호)

이 시에서 ‘평화의 보검’이자 ‘너’로 호명되는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14’형이다. 화성-14형의 1차 시험발사(2017.7.4.)에 이은 2차 시험발사(2017.7.28)의 성공은 “대륙간탄도로케트체계의 믿음성이 재확증되고 임의의 지역과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대륙간탄

27) 박정철, 「조선의 힘」, 『조선문학』, 2016년 11호.

28) 김정남, (시뻘음)「핵과 평화」, 『조선문학』, 2017년 9호.

도로케트를 기습발사할수 있는 능력이 과시되었으며 미본토전역이 우리의 사정권안에 있다는것이 뚜렷이 입증²⁹⁾된 ‘사건’이었다. ICBM 미사일의 비전은 ‘맑고 푸른 하늘’, ‘문명의 거리’, ‘학교로 가는 아이들의 노래소리’로 이어지는 ‘힘찬 발걸음’의 희망으로 형상되었다.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에 시달리는 약소국가들과 전쟁의 재난에 고통받는 세계 인민들을 구원하는 ‘정의의 보검’으로 구가되었다. 약소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자주·진보·친선·협조를 얻고, 전쟁의 역제를 통해 인류의 이상·자유·행복을 회복한다는 논리를 세운 것이다. 핵무력을 완성하는 과정은 지구적·보편적 측면에서 비폭력 평화주의를 내걸고 있다.

핵과 로켓, 미사일은 북한의 적극적 평화 공세를 보여 준다. 외부의 위협에 맞서 이룩한 성과로 내세운 ‘려명거리’는 평화의 구체화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문명의 발전과 핵 시험을 동위에 둬으로써 자신들의 지향점이 평화이고, 외부가 전쟁과 폭력을 원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위협의 요인을 외부에 돌리는 논리는 위협적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힘으로 맞서겠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북한의 핵무력은 “정의와 징벌의 불/미제 완전멸망의 불”³⁰⁾로 악을 무찌르는 선한 주체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어리고 약한 존재와 검은 구름의 대립은 강한 자가 패배하고 약한 자가 승리를 거두는 시적 정의(poetic justice)에 가깝다. 어린이와 미제의 대결 구도는 언제든지 패배할 수 있는 가능성과 공포를 내포한다.

29) “조선로동당의 전략적핵무력의 일대 시위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서 또다시 성공,” 『로동신문』, 2017년 7월 29일.

30) 리영일, 「백두산은 퇴성친다」, 『조선문학』, 2017년 11호.

4. 공포와 열망의 양가적 심리

제재와 봉쇄는 집단 전체가 응전해야 하는 적이다. 공동체의 운명을 위협하는 제재와 봉쇄는 국제관계에서 힘의 우위를 외화한다. 이는 북한 체제를 압박하는 실존적 위협과 공포였다. 핵보유의 명분으로 세계 평화와 안전 수호를 내세웠지만, 핵을 통해 “세계정치무대에서 존엄높은 정치강국으로의 권위와 영향력을 당당히 행사”³¹⁾하는 힘의 열망에 가까웠다. 특정 집단이 공유하는 특정 시기의 사회적 느낌을 감정의 구조(structure of feeling)라 할 때, 현재적인 사건이었던 핵실험·인공위성 발사·로켓 발사에 대한 시적 감정은 기쁨·희망·환희였고, 이는 개인의 감정선이 아니라 집단의 감정 구조에 가까운 감격이었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에 과장된 몸짓으로 두려워하는 적들의 모습은 ‘제재와 봉쇄’가 얼마나 치욕감과 패배감을 안겨 주었는지 역설한다.

앞서 인용된 리영철의 「평화의 보검」에서 “미제의 정수리를 내리칠 벼락/미본토전역을 재더미로/백악관을 무덤으로 만들어버릴/백두산강군의 무진막강한 힘”의 묘사는 핵무력이 고립의 압박, 불안과 두려움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임을 반증한다. 핵무력 완성의 동기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제재와 압살”³²⁾, “봉쇄의 쇠그물 압살의 올라미”³³⁾, “반공화국압살책동”³⁴⁾과의 대결에 있었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³⁵⁾를 주도하는 미국은 “이 행성을 승냥이 핵발톱으로 거머쥐고/세

31)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년 5월 8일.

32) 한원희, 「우리의 하늘, 우리의 우주」, 『조선문학』, 2016년 4호.

33) 한동선, 「넘치라, 흐르라, 우리의것이여!」, 『조선문학』, 2016년 5호.

34) 송혜경, 「착암기」, (벽시뭍음)「5개년전략고지를 향하여」, 『조선문학』, 2017년 3호.

계패권을 올리려는 악의 제국/비대한 미제”³⁶⁾로서 지구를 위협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세계평화를 간관으로 내세운 핵무력은 “가소롭기 짝이 없는 유엔 《제재결의》”³⁷⁾에도 불구하고 “폭제의 핵으로 정의를 강탈하며/온갖 악이 범람하는 이 행성/몇푼의 딸라에/의리도 량심도 력사도/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어지러운 이 세상”³⁸⁾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정의, 구원, 평화의 라벨을 달고 있는 북한의 핵은 실존적 위협과 공포를 동반한다. 그렇기에 현실적 패배를 보상하는 기제로서 더욱 핵을 열망하게 되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어떤 위협을 당할 때 느끼는 감정을 대상의 유무에 따라 공포(fear)와 불안(anxiety)으로 구분했다. 구연상은 하이데거의 논의를 바탕으로 공포와 불안이 실존의 근원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불확실한 미래의 예측불가능성에서 공포와 불안이 생긴다는 것이다.³⁹⁾ 바우만에게 공포는 위협의 정체를 모르고, 그것에 대처할 방법이 없기에 발생한다.⁴⁰⁾ 바바렛은 고립의 공포는 사회적인 공포라고 보았다. 사회구조는 개인의 정치적·사회적 정체성과 집합행동의 형성·유지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⁴¹⁾ 이들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국가 단위로 위협당하며 발생하는 공포의 감정은 집단의 심리이다.

35) 김정남, (시뭉음)「핵과 평화」, 『조선문학』, 2017년 9호.

36) 전승일, 「《화성》의 불뢰성은 왜친다」, 『조선문학』, 2017년 9호.

37) 김정경, 「우리는 시작하리 복수의 성전을」, 『조선문학』, 2017년 10호.

38) 박현철, 「나는 아름다운 행성을 본다」, 『조선문학』, 2017년 9호.

39) 구연상,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불안』(서울: 청계, 2002), 64~73쪽.

40)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 『유동하는 공포』, 함규진 옮김(서울: 웅진씽크빅, 2009), 12쪽, 157~158쪽.

41) 잭 바바렛(J. M. Barbalet), 『감정의 거시사회학』, 박형신·정수남 옮김(서울: 일신사, 2007), 262~268쪽.

공동체 전체가 안전을 염려하고,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 또한 정상적인 심리반응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를 목격하고, 한국전쟁 때 미 공군의 폭격과 핵 위협을 경험했던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핵 위협이 단순한 ‘위협’ 이상으로 실제화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다. 1960년대 들어 북·소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핵우산이 불안정해지고 중국이 ‘자주국방’의 이름으로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시켰던 것처럼, 북한도 스스로 핵억지력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⁴²⁾ 미국의 한반도 안보 개입은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가속화했다.⁴³⁾ 북한 핵문제는 중·러·북 관계의 복잡성,⁴⁴⁾ 강대국 경쟁의 대리전 성격,⁴⁵⁾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결부된 안보 트릴레마(security trilemma) 문제⁴⁶⁾ 등으로 얽혀 있었다.

42) 주재우·박태균, “냉전 시기 중국 핵개발 사례를 통해 본 북핵 문제의 현재와 미래,” 『역사비평』, 126호(2019), 328-331쪽.

43) 미국은 정전협정 체결 직후에 전술핵무기를 남한에 배치한 이래 한국군의 전력 증강, 합동군사훈련, 한·미·일 동맹을 통해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켰다. 1990년대 중국과 소련이 남한과 수교함으로써 북한의 안보불안이 극대화되었다. 김진환, “북한의 안보 전략 변화: ‘핵무기-안보 교환 전략’의 등장, 진화, 전환?” 『동북아연구』, 28권 1호(2013), 92쪽.

44) 문홍호의 정리에 의하면, 중국은 북한 핵 문제가 발생한 1993년 이후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한 2017년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정책적 우선순위로 설정해 왔다. 러시아는 갈등의 여지가 있는 분야는 최대한 회피하는 선에서 중국과 협력해 왔다. 문홍호, “중·러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중소연구』, 41권 4호(2018), 81-84쪽.

45) 전성훈은 북한 핵문제가 미·중, 미·러 강대국 경쟁이 한반도 차원에서 진행되는 대리전이며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대등한 경쟁자로 참여하는 강대국 경쟁의 한반도 축소판으로 보았다. 전성훈, “21세기 강대국 경쟁시대에 북한 핵문제의 진로,” 『북한학보』, 43집 1호(2018), 21쪽.

46) 북핵문제는 북·중·미, 한·미·중, 남·북·미 및 남·북·중의 상충하는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다. 윤대엽, “북핵 문제와 동북아의 안보 트릴레마: 남북미중의 전략 피즐,” 『국방연구』, 61권 4호(2018), 72쪽.

북한의 핵 보유 의지는 강대국의 핵우산에 기대지 않는 ‘주체의 길’을 걷는 자주 국방의 완성에 있다. 3차 핵실험 직후의 연설에서 자주권의 열망은 분명히 표현되었다. 불과 100년 전에는 “제 나라 황실을 지키려는 것은 물론 온전한 군대도 없어 오랑캐들에게 구걸해야 했고 힘이 약한 탓에 눈을 편히 뜨고서도 왜놈들에게 황후가 비참하게 살해되고 황제도 남의 나라 공사관에 갇혀야만 했던” 약소국의 처지였다면, 3차 핵실험으로 “전략로켓 및 핵무기보유국”의 존엄을 과시하며, “종합적 국력을 과시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다.⁴⁷⁾ 국가의 존엄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핵은 포기할 수 없는 열망의 대상인 것이다.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발사 성공 후 “책임있는 핵강국이며 평화애호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숭고한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⁴⁸⁾을 성명으로 발표했다. 다음 날에는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우리 조국이 국가 핵무력 건설의 역사적 위업을 빛나게 완수했음을 만천하에 시위한 영웅적 쾌거”⁴⁹⁾가 된다면서 ‘핵무력 완성’을 천명하였다. 핵무력 완성은 시인에게 “뿔어치는 가슴속 이 걱정을 다 담기엔/무한한 우주여 너도 좁”⁵⁰⁾다고 느낄 정도로 무한한 기쁨을 준 사건이다. 시적 정의 속 가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적에게 패배감을 안겨준다는 상상은 북한의 로켓강국의 위업을 보고 미국이 절규하고,

47)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선군위업, 애국업적 받들어 당당한 핵보유국의 존엄을 만천하에 떨친 정치군사적대승리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전략로켓 및 핵무기보유국,” 『로동신문』, 2013년 2월 25일.

4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 성공,” 『로동신문』, 2017년 11월 29일.

49) “《화성-15》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을 축하,” 『로동신문』, 2017년 11월 30일.

50) 김정삼, 「태양조선 만만세」, 『조선문학』, 2018년 2호.

그것을 “강자의 쾌감”⁵¹⁾으로 듣는 여유로 표현되었다.

공포의 문제는 북한의 핵실험을 이해하는 코드 중 하나이다. 핵이나 미사일을 노래한 시에서 북한은 과장된 자신감을 뽐어낸다. 두려움이나 공포는 오히려 적이 느끼는 심리로 그려져 있다. ‘제재와 봉쇄’로 위협을 일삼는 외부의 적들은 북한의 핵무력을 두려워하기에, 핵을 쥐는 과정은 그 외부 세력과 ‘동등한’ 힘으로 맞서는 과정이 된다. 핵이 없는 북한은 강력한 힘을 가진 외부의 적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절박함이 내포되어 있다.

핵무기의 파괴력은 상대방을 억지할 수 있는 위협이다. 적국도 나도 모두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핵무기의 파괴력이 평화를 만든다. 핵전략의 성공은 나의 핵무기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고 믿게 해야 한다.⁵²⁾ 공격 위협을 통한 방어는 각종 매체에 실린 정론, 사실, 화보, 기사, 시, 가사, 수필 등 다종다양한 텍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 로켓, 미사일 등의 실험과 발사 소식이 문학의 중요 맥락이 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북한의 국가 담론이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구축된 공포에 대한 사회적 심리와도 연관되어 있다. 체제를 보장 받고, 위기에 대응하고 극복하는 수단이 핵인 것이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적과 나, 외부와 내부를 적대적 갈등과 대립적 이미지로 표상하면서, 전쟁과 평화를 기표로 내세우며 형성되었다.

2018년 신년사는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던 2017년을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 불멸의 리정표를 세운 영웅적투쟁과 위대한 승리의 해”로 규정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고

51) 김춘길, 「새벽 2시 48분!」, 『조선문학』, 2018년 2호.

52) 홍우택·박창권, 『북한의 핵전략 분석』, 82쪽.

림압살책동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우리 혁명은 류레없는 엄혹한 도전에 부닥친 “최악의 난관” 속에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자평하였다. 그중 가장 특출한 성과는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성취한 것”으로, “마침내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틀어”쥐었다고 과시하였다. 더불어 미국이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위협을 가한 바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의해 “생존을 위협”받고, “제재와 봉쇄의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것이다.

2018년 신년사에 녹아 있는 자신감은 제재와 봉쇄가 생존을 위협하던 공포였음을 응축한다. 인류의 평화를 위한다는 보편주의는 핵무력의 정당화 논리였다. 삶과 존엄의 수호는 생존에의 절박함이었으며, 무력(無力)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이 필요하다는 순환론으로 이어졌다. 결국 핵무력의 완성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욕망의 드러남인 것이다.⁵³⁾ 또한 핵무력 완성 이후 핵무력 포기 선언은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⁵⁴⁾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5. 우주적 상상과 국력의 재구성

공포와 열망의 양가성을 지닌 ‘핵’의 완성은 북한을 어떻게 재구성

53) 이지순, “타자의 문화정치학으로 북한 시 읽기,” 142쪽.

54) 김진환, “북한사회와 자본주의 세계의 공존,” 『북한학연구』, 14권 1호(2018), 34쪽.

하는가? ‘핵강국’은 핵을 보유한 강한 나라, 다른 나라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나라이다. 국력이란 “평화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종합적 힘”⁵⁵⁾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핵무력은 이중적이다. 타자의 것이었을 때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실험 단계에서는 강력한 열망의 대상이고, 완성으로 획득했을 때는 국력의 제고이다. 경제건설에 주력하면서도 핵을 통해 자주권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는 2013년 병진노선에서 분명히 천명되었다. 그렇다면 핵의 여정이 어떻게 국력의 이미지를 생성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6년 2월 7일 ‘광명성-4호’ 발사 성공은 ‘승리자의 대회’를 맞이하는 가장 강력한 사건이었다. 류명호는 “우리 생활에서/우주라는 말이/위성이라는 말이/멀리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위성발사 성공으로 “우주를 타고앉아/세계를 굽어보는 강대국”이 된 것을 선언하며 “우리의 위성과 함께 우주에 날아올라 지구를” 보는 전환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노래한다.⁵⁶⁾ 위성발사의 성공은 국가 힘의 과시이다. 군사적 시각에서는 미국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우주이지만, 시적 시선은 지도가 아니라 우주에서 조선의 이름을 호명하는 공간의 확장에 닿아 있다. 위성발사의 성공은 ‘우주를 타고앉아’ 세계를 굽어보고, 위성과 함께 우주를 날아올라 지구를 바라보는 시적 상상력으로 확대된다. 약소국가가 꿈으로만 꾸던 우주는 이제 현실이 되었다.

북한의 핵과 위성은 강대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는 자주권의 상징이다. 또한 그것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제국주의자들의 “각종 제지와

55) 최창현·주성돈, 『국력이란 무엇인가』(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ix쪽.

56) 류명호, 「조선의 이름을 지도에서만 찾지 말라!」, 『조선문학』, 2016년 4호.

핵위협”에 응전하는 힘, 문명의 위력, ‘우주정복’의 자신감이다. “남들이 가꾼 터밭에서/씨뿌리고 열매맺은 네가 아니”고, “자강력의 창조물 위성”이기에 귀중하고 기쁜 산물인 것이다.⁵⁷⁾ 위성발사의 성공은 강성국가가 지닌 힘이자, 지구라는 행성을 벗어난 공간의 확장을 상징한다. 우주정복을 상상하는 즐거움은 행간 곳곳에 묻어 있다. 즐거운 상상과 교차되는 것은 지도자 숭배이다. 변홍영은 김일성의 항일의 총검과 자위의 국방공업을 김정은의 수소탄 시험 성공의 위력과 연결하여 김정은의 군사 리더십과 지위 승계의 정당성을 보여 준다.⁵⁸⁾ 한원희는 “하늘처럼 끝간데없는 기쁨”과 “우주처럼 무한대한 감격”으로 수소탄과 위성을 노래한다. 김정은의 사랑과 은정조차 “하늘처럼 끝이 없”고 “무한대한 우주처럼 기슭이 없”다. 이제 “하늘도 우리의 하늘/우주도 우리의 우주”가 되었으니 7차 당 대회를 승리의 대회로 만들기 위해 총진군하자고 격려한다.⁵⁹⁾

《북극성-2》형 전략탄도탄에서/실시간으로 수신되는 지구사진/바라보는 우리 저 우주에 올랐나/황홀함에 넋을 잃었는데//원수님은 웃음속에 말씀하시네/우리가 쏜 로케트에서/지구를 쪽 내려찍은것을 보니/정말 기분이 좋다고/온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인다고//지구는 수십억인류의 집 삶의 터전/마땅히 아름다워야 한다/그이는 지금 아름다운, 아름다워야 할/이 행성을 안으시고 세상을 호흡하신다

김경남, 「원수님 계시여 온 세상은 아름답다」 부분, (시뭉음)「핵과 평화」(『조선문학』, 2017년 9호)

57) 강문혁, 「영원한 주소」, 『조선문학』, 2016년 4호.

58) 변홍영, 「평천리의 첫 기관단총」, 『조선문학』, 2016년 4호.

59) 한원희, 「우리의 하늘, 우리의 우주」, 『조선문학』, 2016년 4호.

이 시에서 우주로 날아간 로켓은 지구를 내려다본다. 온 세상이 아름답다고 지구가 아름답다. 로켓 발사는 이 행성에 사는 인류의 터전이 ‘미쁘히 아름다워야 한다’는 김정은의 연술이자 정언명령으로 작동한다. 로켓은 세계 평화와 아름다움을 위한 ‘선의지(good will)’의 실천이며, 그것을 조망하는 것은 신적인 시선, 우주적 시선이다. 지역의 안위가 아니라 인류의 삶, 조선반도뿐만 아니라 전 지구로 미의 시선이 확대된다. 핵무력으로 가는 과정을 보편주의로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동원된 것은 자국의 안전과 보호가 아니라 인류의 영원한 평화와 번영이었다. 행성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대륙간탄도로켓’이라는 “정의의 불덩어리”로 “폭제의 핵으로 정의를 강탈”하는 ‘미국’을 응징한다는 것이다. 로켓이 솟구쳐오를 때 “그 비행운이 무지개되어/지구를 휘감는 황홀한 모습을/미국이 없는 깨끗한 이 행성을!” 상상한다는 것이다.⁶⁰⁾ 그리고 6차 핵실험과 핵무력 완성 선언 즈음에는 전쟁위기의 고조에도 불구하고 문학적 상상력이 절정에 이른다.

깊은 밤이면 창을 열고/별들을 세여보며/그 별들이 모두/우리의 《화성》인것만 같아/끝없이 더 정답고 아름다운 저 하늘//그렇다, 하늘/그것은 우리의 《화성》!/그렇다, 《화성》/그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푸른 하늘//내 어찌 자주/그 하늘을 쳐다보지 않으랴/쳐다보면 가슴은 더 넓어지는데/쳐다보면 조선민족 된 자랑과 긍지로/이 마음 바다처럼 끝없이 뒤설레는데 (...중략...) 내 나라의 하늘이여/내 어찌 자주 너를 쳐다보지 않으랴/너의 그 아아한 높이는/세상이 우러르는 우리 존엄의 최절정/너의 그 맑고 푸르름은/인류가 부러워 바라보는 우리 행복의 무지개//영원한 꽃구름이 피여 웃는 내 조국의 하늘이여

박현철, 「나는 하늘을 자주 쳐다본다」 부분(『조선문학』, 2017년 10호)

60) 박현철, 「나는 아름다운 행성을 본다」, 『조선문학』, 2017년 9호.

태초의 신화는 하늘과 땅이 열리고 우주 공간의 질서가 생기는 것에서 시작한다. 지상의 유한성과 대립되는 천상의 무한성은 동경하는 것이지 지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화성’은 하늘의 별들처럼 하늘에서 지상을 굽어보며 수호한다. 하늘 또는 우주는 더 이상 미지의 영역이 아니게 되었다. 개척과 정복의 대상이자 지배력을 행사하는 영토가 된 것이다. 장소 아이덴티티가 없었던 하늘과 우주는 화성, 북극성, 광명성을 쏘아 올리면서 병진노선의 이데올로기적 공간이 되었으며, 핵경합의 장소가 되었다. 핵우뢰로 핵구름을 물리치고 되찾은 푸른 하늘은 선택 시대의 상징적 기호로 작용한다. 시적 화자는 하늘과 우주에 대한 지배적 헤게모니를 갖게 되면서 시도 때도 없이 하늘을 보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 시적 화자가 별을 세어 보며 저 별들이 모두 ‘우리의 《화성》’인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은 공간 감각의 우주적 확대이다.

우주의 속도인 만리마의 속도감각은 로켓이 상징하는 힘의 감각이다. 북극성과 화성의 속도는 동북아시아의 변방 국가이자 봉쇄와 제재로 고립된 구역을 벗어나 우주로 치솟게 하는 힘의 상징이다. 우주적 시선과 상상력은 변방의 좁은 지역을 벗어나 지구를 조망하게 하는 매개가 된다. 지역적 영역성(territoriality)을 벗어난 시선은 제재와 봉쇄로 힘을 구사하는 강대국들도 지역적 영역성에 머물게 하고, 주변화한다. 우주는 북한과 세계를 지구의 거주자라는 점에서 동등한 관계를 표상하기 때문이다.⁶¹⁾ 힘의 우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은 역설적으로 힘을 압축한 핵무력이었다.

핵무력 완성까지 보여주는 시적 어법은 ‘세계’를 신경 쓴다는 점이

61) 이지순, “7차 당 대회 이후 ‘만리마’의 표상 체계,” 56쪽.

다. 자력갱생이 아니라 자력과 자강으로 힘을 얻어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적의 위협에 대응할 힘을 갖추고자 하는 욕구의 표출이었다. 이는 국가 간의 힘의 불균등이 공포를 유발하며, 체제 안전에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는 자각인 것이다. 미국으로 대표되지만, 실제로는 중국·러시아와도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는, 힘의 우위와 권력의 차이는 공포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재와 봉쇄, 혹은 그들의 군사적 위협이 체제를 붕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자신에게 행사되는 외력을 인정한다는 것의 반증이다.

김정은이 사업총화보고에서 빈번하게 사용한 단어 중 하나는 ‘세계’였다. 세계적인 강국, 세계정치무대에서 권위와 영향력을 당당히 행사하는 국가, 세계 평화와 인류의 안전, 세계적인 모범의 창조,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 나가는 것 등등 설계도의 기준은 ‘세계’였다. 세계 강대국의 평판과 인정을 중시하면서 자국의 명예와 자존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가 곳곳에 드러나 있었다.⁶²⁾ 세계를 앞서 나갈 우월한 힘을 갖거나, 대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세계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핵무력 완성을 횡단하는 욕망이었다. 그래서 만리마로 표상되는 발전의 기대지평도 ‘세계 수준’ 또는 ‘세계를 능가’하는 것에 있다. 핵무력 완성을 통한 북한의 미래의 발전 전략은 내부로 투사되었던 민족주의가 아니라 세계화 또는 지구화일지도 모른다. 변방의 봉쇄 국가가 아니라 세계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국력에 대한 열망이라고 볼 수 있다.

■ 접수: 2월 21일 / 수정: 4월 11일 / 채택: 4월 12일

62) 이지순, 위의 글, 57쪽.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조선문학』, 2016~2018년.

2) 신문

김정은, “신년사,” 『로동신문』, 2018년 1월 1일.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년 5월 8일.

“《광명성-4》호 발사성공 평양시군민경축대회,” 『로동신문』, 2016년 2월 8일.

“《화성-15》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을 축하,” 『로동신문』, 2017년 11월 30일.

“만세 만세 만만세!” 『로동신문』, 2017년 11월 30일.

“우리의 선택은 적대세력의 상상 초월할것,”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5일.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선군위업, 애국업적 받들어 당당한 핵보유국의 존엄을 만천하에 떨친 정치군사적대승리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전략로켓트 및 핵무기보유국,” 『로동신문』, 2013년 2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 3월 전원회의 결론,”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2일.

“조선로동당의 전략적핵무력의 일대 시위 대륙간탄도로켓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서 또다시 성공,” 『로동신문』, 2017년 7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트시험발사 성공,” 『로동신문』, 2017년 11월 29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구연상,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불안』(서울: 청계, 2002).

바바렛, J. M.(J. M. Barbalet), 『감정의 거시사회학』, 박형신·정수남 옮김(서울:

일신사, 2007).

바우만, 지그문트(Zygmunt Bauman), 『유동하는 공포』, 함규진 옮김(서울: 웅진씽크
빅, 2009).

윌리엄스, 레이몬드(Raymond Williams), 『이념과 문학』, 이일환 옮김(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2).

최창현·주성돈, 『국력이란 무엇인가』(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홍우택·박창권, 『북한의 핵전략 분석』(서울: 통일연구원, 2018).

2) 논문

구갑우, “북한 ‘핵 담론’의 원형과 마음체계, 1947~1964년,” 『현대북한연구』,
17권 1호(2014), 197~250쪽.

김성수, “‘선군(先軍)’과 ‘민생’ 사이: 김정은 시대 초(2012~2013) 북한의 ‘사회
주의 현실’ 문학 비판,” 『민족문학사연구』, 53집(2013), 410~440쪽.

_____, “당(黨)문학의 전통과 7차 당 대회 전후의 북한문학 비판,” 『상허학보』, 49집
(2017), 383~415쪽.

김진환, “북한의 안보 전략 변화: ‘핵무기-안보 교환 전략’의 등장, 진화, 전환?”
『동북아연구』, 28권 1호(2013), 91~131쪽.

_____, “북한사회와 자본주의 세계의 공존,” 『북한학연구』, 14권 1호(2018),
5~38쪽.

문홍호, “중·러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중소연구』, 41권 4호(2018),
69~97쪽.

윤대엽, “북핵 문제와 동북아의 안보 트릴레마: 남북미중의 전략퍼즐,” 『국방연
구』, 61권 4호(2018), 53~76쪽.

이승열·이승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016년 남북관계 전망,” 『이슈와 논점』,
1119호(2016).

이지순, “7차 당 대회 이후 ‘만리마’의 표상 체계,” 『한국언어문화』, 67집(2018),
45~72쪽.

_____, “타자의 문화정치학으로 북한 시 읽기,” 『계간 작가들』, 67호(2018),
127~145쪽.

이중구, “북한 핵증강론의 담론적 기원과 당론화 과정,” 『국제정치논총』, 57권 1

호(2017), 155~201쪽.

전성훈, “21세기 강대국 경쟁시대에 북한 핵문제의 진로,” 『북한학보』, 43집 1호 (2018), 4~32쪽.

정현숙, “북한 핵정책의 기원에 관한 연구: 핵 잠재력 확보전략을 중심으로”(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주재우·박태균, “냉전 시기 중국 핵개발 사례를 통해 본 북핵 문제의 현재와 미래,” 『역사비평』 126호(2019), 321~353쪽.

3) 신문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71호 만장일치 채택,” 『중앙일보』, 2017년 8월 6일.

Contemplation and Representation of Nuclear in North Korean Poetry: focusing on images, psychology, and imagination

Yee, Ji Su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This article focused on how the North Korean poetry thinks and imagines nuclear weapons, and to look at how nuclear is expressed in poetry, focusing on images, psychology and imagination. The poetry shows how North Korea feels and experiences nuclear power. Nuclear is ambivalent. North Korea described its nuclear as peace, America's nuclear as war. North Korea has sought to complete independent security, and now desires to become a global nation by raising its national power. Countries with strong powers to impose economic sanctions and blockades on North Korea made North Korea feel existential anxiety and fear of survival, which paradoxically made North Korea desire for power. The national power was expressed sensuously through the viewpoint of satellites and rockets from space and its poetic imagination. The gaze from the universe to the earth made North

Korea out of the narrow territoriality of the periphery, while at the same time expressing equal relations between the world and North Korea. North Korea expanded its senses to outer space by completing the nuclear force. It was a paradox that mad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ld and North Korea equal in terms of equality, not the relationship of power.

Keywords: the 7th Party Congress, completion of nuclear force, existential anxiety, structure of feeling, fear, desire, isomorphism, national power, territoriality, cosmic imagination